

## 행정안전부,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 최초 수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2023.2.5.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2022년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으로, 올해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 및 보행약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 2023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 주요 내용

| 추진전략                              | 정책과제   |
|-----------------------------------|--|
| I. 사고데이터 기반 보행자 안전<br>위해요소 제거     | ① 이면도로 실태조사 등 보행자 안전 강화<br>② 사고빈발 교차로 횡단보도 안전관리 수준 제고<br>③ 안전보행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등 관리 강화 |
| II.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br>인프라 확충     | ① 교통약자 보호제도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br>②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 조성<br>③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행안전 강화              |
| III. 보행 활성화를 위한<br>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 ① 보행 중심의 도시환경 정비<br>② 노상주차, 도로점용 등 보행 방해요소 해소  |
| IV. 보행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및<br>보행안전문화 활성화 | ① 데이터·IT 기술을 활용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br>②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 및 캠페인 추진                              |